



한자의 자획과 필순

필순이란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자 할 때 그 글자를 이루어 가는 차례를 말한다.

한자의 필순은 원칙적으로 각 글자마다 일정한 차례가 정해져 있지만, 꼭 이렇게 써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. 하지만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체험을 통해 정해진 전통적인 필순이 있다. 이 전통적인 필순에 따라 한자를 쓰면 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, 글자의 모양도 아름다워지고 획수도 정확하게 셀 수 있다. 즉, 필순에 맞게 한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곧 바른 한자 학습의 기초를 닦는 길이 된다.

1 | 한자의 획

한자를 이루고 있는 선이나 점으로, 붓을 대어 한 번에 긋는 것을 '획'이라 한다. 즉 한자를 쓸 때, 한 번 붓을 대었다가 땀 때까지 그어지는 선이나 점이 곧 1획이 되는 것이다.

2 | 한자의 필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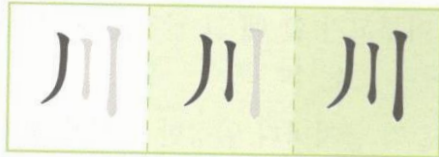
(1) 필순의 대원칙

① 위에서 아래로 : 글자의 윗부분부터 아래로 써 내려간다.



* 6 금 漢字 | 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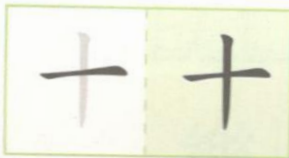
- ②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: 글자의 왼쪽에 있는 획부터 시작해 오른쪽으로 써 나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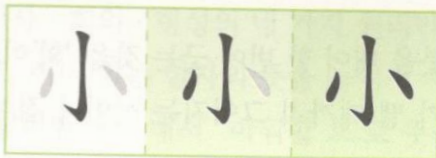
- (2) 필순의 여러 가지

위의 2대 원칙에 따르되 다음과 같은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 그때 그때 바르게 익혀 두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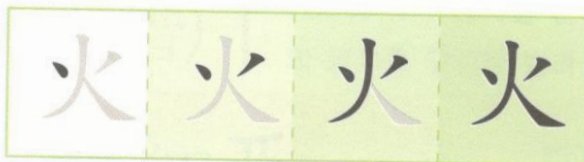
- ① 가로획과 세로획이 겹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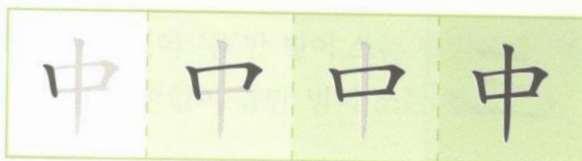
- ② 좌우 대칭인 경우 한가운데 부분을 먼저 쓰고 좌우 양쪽은 나중에 쓴다.



- * 좌우를 먼저 쓰고 한가운데 부분을 나중에 쓰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.



- ③ 글자 전체를 꿰뚫는 세로획은 맨 나중에 쓴다.



- ④ 글자 전체를 꿰뚫는 가로획은 맨 나중에 쓴다.



- ⑤ 둘러싸고 있는 글자는 바깥 쪽을 먼저 쓴다.



- ⑥ 삐침은 파임보다 먼저 쓴다.



- ⑦ 받침은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뉘어진다.
첫째, 받침이 독립자로 쓰이는 경우는 먼저 쓴다.



둘째, 독립자로 쓰이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쓴다.



- ⑧ 오른쪽 위의 오른쪽은 맨 나중에 찍는다.

